

행정박물의 근대문화유산적 가치와 보존방향

강대일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Value and Conservation of Documentary Art Records

Dai Ill Kang¹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uyeogun, 323-812, Korea

¹Corresponding Author: conserva@nuch.ac.kr, +82-41-830-7361

초록 행정박물이란 공공업무의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로서 역사적·상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이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박물을 기록물관리 범위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기록물관리법령 제3조에서는 행정박물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행정박물의 관리는 형태·재질별 분류만으로는 기록으로서 행정박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행정박물은 일반적인 기록물과 비교해 다양한 연유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행정박물에 대한 기초적인 재질 조사와 적합한 보존 및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행정박물은 문화재로서 아직 그 수요량이 많지 않으나, 국민 의식수준 향상 및 알 권리를 위한 행정박물의 공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역사 및 문화의 해석을 위해 보존·활용 가능하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유물별 손상등급을 부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 조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박물을 보존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종합적이고 선진화된 행정박물의 보존·복원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심어: 행정박물, 보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ABSTRACT As the tangible evidence, documentary art records are permanent records to reflect the historical, symbolical, cultural and artistic value. Also, documentary art records are related with mission fulfillment of public institution and it is documentary with administrative, cultural and artistic values as the works of documentary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imag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law" was the first time that administration documents were incorporated and in the act No. 3 of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documentary art records became legislated. The management of documentary art records are difficult to categorize only by the reflect of characteristics or materials. Because documentary art records are collected in many ways and made with materials. It needs to be collected with many informations on basic materials and with the appropria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tegory. Documentary art records do not have lots of demands but the level of consciousness is improving and the possibility of opening to public is increasing for improvement with the right to know. In near future, the documentary art records will be used for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preservation and modern cultural heritage could have the value as it is expected. Primarily to prevent deterioration on documentary art records the standard survey card

should be made to categorize the damage rate and to check the status on each documentary art records. In addition, establishing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for various documentary art records are needed with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the conservation of documentary art records.

Key Words: Documentary art records, Conservation, Cultural Heritage of early modern time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1. 서 론

행정박물이란 공공업무의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로서 역사적·상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이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¹⁾

국내에서 행정박물은 특수기록물의 하나로서 국가기록관리대상이며 국새, 깃발, 현판, 상장, 모형, 도자기, 기념품 등과 같은 형상기록물과 기록정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과 같은 인쇄물류와 시청각 기록물도 행정박물의 유형에 포함된다. 행정박물은 공공업무의 활동을 반영하는 역사적·상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로서 업무수행의 행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역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입증해주는 사료로 일반적인 형태의 기록물에 비하여 시각적·상징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행정박물을 통해 후대 사람들은 행정박물 생산 당시 사회상과 문화, 환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어떠한 시대의 기관에 대한 역사나 업무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총 102종류가 소장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행정박물로는 등록카드, 지도, 기념우표, 엽서, 화보, 팸플릿, 관인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박물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통계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 문서 자료의 수집량이나 특수매체인 시청각 기록물의 수집량을 근거로 비교해 보더라도 행정박물의 소장량은 다른 형태의 기록물에 비하여 그 수집과 관리 면에서 지극히 소홀히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박물에 관한 법규적 정의만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 행정박물의 특성에 알맞은 정리 기술이나 관리 보존을 위한 분류의 표준화와 기술 규칙에 관한 지침은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박물은 특성상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되어 재질 및 제작 특

성이 다양하지만 행정박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열화 되어 그 원형을 잃어버리고 있는 행정박물의 보존 지침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예술 활동 등을 통해 생성된 모든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특히 개화기 이후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을 근대문화유산이라 한다.²⁾

2005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 47조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2001년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조물, 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 생활문화 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건조물이 등록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역사적·문화적 유용성과 현물적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지니고 있는 행정박물의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행정박물의 정의와 유형

2.1. 행정박물의 정의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관인류, 배지, 깃발 등과 같은 박물류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행정박물은 공공기관의 행정 유물적 가치를 지닌 형상기록물로서 공공기관에서 사용된 각종 물건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 등을 의미하고 대부분 독특하고 유일하며, 사건, 시간, 또는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정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p17 (2007).

2)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p7 (2006).

Table 1. Entire possession of archival object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9).

Classification	Form	Possession	Contents
		Total	
		54,803	
Government seal	Government seal	14,348	Seal of state the great seal, Official seal
	Sample	8,980	Stamp, Badge
Symbol, Souvenir	Present	1,088	Jewelery, Clock, Ornament
	Symbol	371	Hanging board, Flag, Model, Government goods
	Souvenir	29,531	Poster, Pamphlet, Souvenir, Registration card
	Mourning badge	219	Mourning badge, Medal, Trophy
Office good	Office good	266	Office good



Figure 1. Audio-visual documentary and stamps of the president.

또한 생산부터 보존에 이르기까지 처리절차와 방법, 보존 환경 등에서 일반기록물과는 구분되며, 국새, 깃발, 현판, 상장, 모형, 도자기, 기념물 등과 같은 형상을 가지는 행정박물은 높은 상징성과 함께 그것을 전달하는 효과가 다른 기록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박물을 "Documentary Art Records" 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행정박물을 그림, 메달, 우표, 통치자가 사용한 물품, 복사물 혹은 캐나다 역사, 정부, 사회발전을 그린 작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카드엽서, 감사장, 전단지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생산된 '물건'도 포함하고 있다. Table 1과 같이 국가기록원 행정박물 전체 보유현황은 파악되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행정박물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록물관리 대상으로서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행정박물의 기준 및 범위와 보존·관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박물을 기록물관리 범위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³⁾ 또한, 2007년 4월 개정된 기록물관

리법령 제3조에서는 행정박물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하며, 공공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의한 행정박물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2.2. 행정박물의 유형

행정박물의 유형으로는 Figure 1과 같이 기관의 직인 등과 같은 관인류, 업무수행의 결과물·행사 및 기관기념물·훈장·우표·화폐·기념품·현판·휘호 등의 상징·기념물, 대통령 등 주요 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영구기록물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행정박물은 기관에서 사용했던 관인, 현판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되는 것도 포함되며, 미술품, 공예품과 같은 예술작품이 업무수행 중에 생산되거나 취득된 것이라면 행정박물로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행정박물의 유형 분류를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행정박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형태와 소재별 유형 분류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많은 유형의 행정박물을 포함할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8852호, 2008.2.29)



Figure 2. Metals(lead) of the corrosion and degradation of the film surface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silver precipitation). A: Metals and corrosion. B: Airborne pollutants in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C, D: A guide to the preventive conservation of photograph collection.

수 있도록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토대로 크기, 재질,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3. 행정박물의 관리체계와 보존

3.1.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국외에서는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 이전까지는 대통령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기록물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여,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나 대학교 등에 기증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공공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열두 개의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은 약 50만점 이상의 행정박물을 소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행정박물 및 기록물의 분류 개념은 기록물이 형성되는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서로 구분 짓고 또한 통합 시킴으로써, 관리대상 기록의 지적, 물리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적인 기록은 파편화된 제한적 정보에 국한되므로, 해당 정보의 전체상을 온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관기록을 연계하여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또한, 분류를 통해 기록의 구조적 연관관계와 가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록의 검색 및 활용을 비롯한 기록관리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영역으로서 반드시 제도 및 정책과 더불어 개발되어야 한다. Figure 2와 같이 행정박물은 그 특성상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기술로 제작되어 그 재질 및 특성이 다양하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보존·보관시스템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많은 소장품이 계속적으로 열화가 발생하고 산화되어 그 원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기술의 정립과 함께 여러 재질에 대한 기록물의 분류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박물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공공영역의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관심이 증대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기록원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의 설치가 제도화되었고, 2007년 12월에는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 건물 내에 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수집 및 보존뿐만 아니라 전시 및 활용을 중시하는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적 특성이 있으며, 행정박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예로 볼펜, 마우스패드, 열쇠고리, 책갈피 등 새로운 유형의 행정박물들이 기록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박물의 관리가 법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록으로서 행정박물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행정박물의 보존과 보관에 있어서도 기존에 일반적인 박물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형태·재질별 분류만으로는 기록으로서의 행정박물의 특

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행정박물로 보존되는 의복류의 경우 의복자체가 지닌 역사성 및 아름다움 보다는 공무활동의 유니폼, 주요 행사를 위해 제작된 기념 티셔츠, 공직자 선물로 받은 의복 등 그 의복이 공공업무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생산되었고 활용되었느냐가 기록물로서 행정박물로 보존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기록물로서 행정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유형분류가 필요하다.

3.2. 행정박물의 보존

행정박물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한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본래의 형태로 되찾는 것이 어려우며, 그 보존은 행정박물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대에서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행정박물이 단순히 지니고 있는 다양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에 의해 보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므로, 이것을 능숙하게 현재화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을 촉진시켜 행정박물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박물 소장품 중 무기재질로 구성된 금속유물의 경우 은과 청동 유물은 환경 부식 인자들에 의해서 표면 흑화 현상이나 표면 박락 현상 그리고 청동병과 같은 녹회색의 반점 등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물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유물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광물화되어 전신나 보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토기 및 도자기 소장품들의 경우 표면 변색이나 박락, 염 풍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재질 자체를 계속적으로 열화시켜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각 재질별 정확한 손상원인을 밝혀 올바른 보존처리를 행하는 것은 유물을 오래도록 보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기재질로 구성된 소장품에서도 온·습도 및 충균의 피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충에 의한 피해의 경우 유물 자체를 잠식하여 재질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박물의 지속적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져 있는 무·유기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 조사카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현재 조사기록카드를 통한 상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에서는 수장고 내 유물들을 조사카드에 근거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각 유물별 손상등급을 부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

다. Figure 3은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의 민족자료 점검을 위한 점검정보기본카드 양식이다. 캐나다 국립기록청은 "캐나다정부의 행정박물 관리"라는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행정박물의 보관·보존·폐기 등의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의 행정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와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행정박물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국립기록청에서도 "행정박물의 보호와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행정박물의 유형에서 대표적 소재에 따라 손상증상을 제시함으로써 재질별 특성에 따라 어떠한 손상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고 내 행정박물들의 상태 점검을 통한 각 유물별 손상등급을 분류하고 행정박물의 손상과 장기 보존을 위한 종합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행정박물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기술과 환경 기준 마련이 미비하므로, 행정박물의 소재별 보존환경 및 처리기술과 수장고내 행정박물 소품의 손상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행정박물의 근대화유산적 가치

근대화유산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현시점에서 50년 전까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문·사회·지리·환경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문화재 개념이다. 근대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19~20세기의 근대화를 거쳐 오늘을 존재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⁴⁾과 전통문화유산과는 달리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되어 그 양식과 기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근대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후대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근대기의 문화유산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훼손되어 가는 위기에 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고제와 지도·조연·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001년에 도입·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 위주의 근대화유산이 주로 등록되어 왔으나 2005년 7월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대상범위를 확대한 후 동산분야 근대화유산도 활발하게 등

4)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 문화재연구, p260 (2009).

No.	Name	Place	Director	Date			
Materia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Material> 10 Organic 20 Inorganic 30 Complex ----- (Species Of material)----- 10 General metal 11 Iron 12 Copper 13 Aluminum 16 Plate 17 Wire net 18 Enamel 19 Machine 20 Stone 21 Glass 22 Earthenware 23 Brassware·China 24 Clay 29 Jewel 30 General plant 31 straw 32 Palm leaf 33 Mat 34 early part of round 35 Fruit 36 Palm bark 37 Gourd 38 Bamboo·Rattan 39 Basket 40 Wood 41 Plant bark 42 Tree bark tape 46 Wood fragment 47 Box 48 plywood 49 Bent barrel·Cylindrical 50 Fabric 51 Twine 52 Rope chain 53 Lace 54 Gun 55 Norwovens 56 Crochet 57 Embroidery 58 Clothing rubber *59 Clothing 60 Coating · Pigment · Ink · Other color 61 Lacquer 63 Foil 65 Paper 66 Oil *69 Paper work 70 General animal 71 Leather 72 Skin 73 Fur 75 Fingernail·Cape·Horn 76 Bone · Tooth 77 Shellfish 78 Inlaid work · Lacquerware 80 Resin·Plastic 81 Resin · Adhesion 83 Rubber 84 Resin·Cera 85 Tape·Sheet 89 Processing food 90 Belonging 91 Obscurity 92 Entire 93 Etc 01 Duplication 02 Paint·Documentary 04 Book 05 Postmark 06 Stamp 07 Label	<Checking result> 00 Normal 10 Cracking 11 Breaking 12 Losing 13 Deterioration 14 Peeling off · Poor adhesion 15 Roundaboutay · Modification 20 Corrosion · Decay 30 Fungi 31 Insect 32 Damage of insect 33 Spider network 40 Discoloration 41 Tape 42 Contamination 43 Using trace 50 Deliscescence 51 Lossing 60 hardening 61 Oil stain 70 Dust 71 Blurring 80 And so on	<Content>				
Result of checking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lassific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0 Obscurity 10 General 20 Big Gun 40 Lacquer 50 Clothing 60 Fur 70 Casket	Repair need <input type="checkbox"/> 1 Yes 0 No	Rumigation Need <input type="checkbox"/> 1 Yes 0 No	Using regul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0 No regulation 01 Impossible loan to other place 11 Impossible loan for display 20 Inconsistent release 30 Insuitable display	Check Date Month Month Month	Period of checking year *Next Checking Year Month	<Caution> <etc>
Formal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1 Yes 0 No	Memo need <input type="checkbox"/> 1 Yes 0 No	Cleaning need <input type="checkbox"/> 1 Yes 0 No					

Figure 3. Checking information base card of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園田直子, “有形文化資源の共同利用を推進するための資料管理基盤形成”, 人間文化研究機構, p14 (2008).

록 ·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Figure 4와 같은 절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에서 문화재의 보존 · 활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Figure 5와 Figure 6과 같이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 · 현대기에 생성된 모든 역사적 · 문화적 산물을 보존 ·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역사적 산물로서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 · 보호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서 보존 ·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를 말한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는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전쟁전후까지의 시간에 건설 · 제작 · 형성된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생성된 문화적 소산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포함될 수 있다.

등록문화재는 건조물, 시설물, 문학 · 예술작품, 생활문화, 산업과학기술분야 등 동산문화재, 역사유적 등 생성된 후 50년을 경과한 다양한 문화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진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을 이루며, 그 가치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났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 등이 등록 대상이 된다. 근대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도별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록화가 완성된 시 · 도부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까지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454건이 등록되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 후, 등록대상이 현재는 건조물, 시설물뿐만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 자산, 동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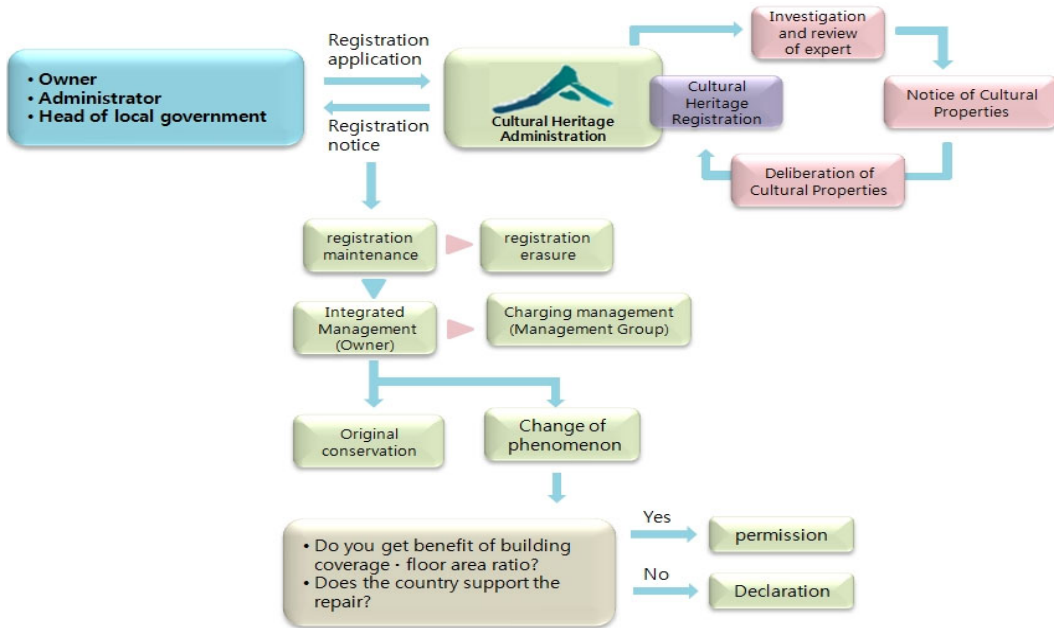


Figure 4. Registration process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Figure 5. Flag signed of Kim Gu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o. 388) and Sedan of President Park Chung-he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o. 398).



Figure 6. Glasses of H.N. Alle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o. 446) and O. R. Avison's surgery scenes film glass plate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o. 448).

화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행정박물관은 미래의 문화재로서 아직 그 수요량이 많지 않으나, 향후 국민 의식수준 향상 및 알 권리를 위한 행정박물관의 공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역사 및 문화의 해석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박물관은 독립적인 원래 형식을 가진 물리적인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유용성과 중요성에 따른 현물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기록으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일반 박물관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공공기관의 관인류, 현판, 상징기, 건물의 벽돌 등은 공공 기관의 상징적인 측면에서 행정박물관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고찰

행정박물관은 역사적·상징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공공기록물로서 일반적인 기록물에 비하여 시각적·상징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박물관을 기록물관리 범위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2007년 4월 개정된 기록물관리법령 제3조에서는 행정박물관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하며, 공공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의한 행정박물관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행정박물관의 관리가 법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록으로서 행정박물관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형태·재질별 분류만으로는 기록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는데, 이는 행정박물관이 일반적인 기록물과 비교해 다양한 연유에서 수집되기 때문이며 관련법령 분석만으로 모든 유형을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관에 대한 기초적인 재질 조사와 보존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박물관의 계속적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유물별 손상 등급을 세부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정확하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 조사카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박물관에는 테이프, CD-ROM 등과 같은 그 용도가 기록정보자료가 아니라 매체의 실질적 가치 때문에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새로운 시청각 매체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 및 보관 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인문학적인 기록물의 역사와 관리에 대한 커리큘럼을 위주로 구성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록물의 과학적인 보존기술과 방법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관 보존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관련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형태로 생산된 행정박물관의 재질별 보존처리 기술과 보존환경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여러 재질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적인 측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종합적이고 선진화된 행정박물관의 보존·복원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이원규,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진리탐구". 서울, p23, (2002).
-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2005).
-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 한국문화정보기술,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국가기록원, (2006).
- 김의주, "대구·경북 개신교 교회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박물관 관리체계 구축 방안". 국가기록원, (2007).
- 국가기록원, "역사로 가는 오늘: 2007 국가기록백서". 국가기록원, p63, (2007).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록물 보존복원기술 R&D사업 기획연구". 국가기록원, (2008).
- 문재필, "행정박물관의 체계적 관리방안과 활용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문화재청, "문화재연감". (2009).
- 강대일, "행정박물관의 보존과 미래가치". 보존기술 공동학술세미나, 국가기록원, (2009).
- 園田直子, "有形文化資源の共同利用を推進するための資料管基盤形成". 人間文化研究機構, p14. (2008).